

한국 근·현대 주택작품에서 나타나는 전통성 해석의 시대적 경향*

Tendency of Traditional Character in Korean Modern House Architecture as an Art Work

Author 전남일 Jun, Nam-Il / 정회원,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주거학전공 부교수, 공학박사

Abstract Since modernization period thru Japanese colonial era the modern architect began to play a important role for Korean housing architecture. So called 'House as an Art Work', detached houses by prominent architects, belong to a meaningful sector in Korean modern housing architecture. The harmony with tradition was always big issue for such work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paradigms for tradition were interpreted with the changes of the time. The analysis showed various tryout by architects, that concretize traditional characteristics in their work. For example, traditional lifestyle were clearly reflected in the floorplan during 30's and 40's. In the 70's building mass and formative roof design were emphasized to present traditional image. As well as it represented primitive esthetic and vernacular decoration. In addition, expressive tendency, that demonstrates korean sentiment through material and its texture, got a preference. Since latter half of 80's some traditional architectural elements were modernized and space characteristics were newly created from acculturation. Furthermore the philosophy of "Subdivision of building wings and Emptiness" follows this trend. This type made a courtyard and connected articulated building masses each other. "Sympathy with Nature" were most essential for a traditional houses in contrast with western architecture. Many architects today make various method to bring nature into interior space and to contemplate nature in the house. Such kinds of adaptation to tradition could be understood as a unique process to manifest identity of Korean modern houses.

Keywords 주택작품, 전통성, 토속성, 표현주의, 채나눔, 자연
House as an Art Work, Tradition, Localism, Expressionism, Subdivision of Building Wings, Natur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건축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 즉 건축가가 등장한 것은 일제강점기로, 근대적 건축 교육의 도입과 함께 한국인 건축가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었다. 주택을 설계하는 사람과 짓는 사람의 역할이 크게 구분되어있지 않았던 전통적인 건축 행위는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때부터 서구식의 고급 주택이 활발히 지어지기 시작했으며, 건축가에 의해 작품으로 지어진 소위 "작가주택"이라는 부문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한 시대의 주택이 변화하는 동력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건축가, 지식인 등 주거문화의 선도에 있는 계층이 주도하는 부문이 전면이 있다면, 그 저변에는 생활

속에서 서서히 변화를 시도하려는 대다수의 민중이 있을 것이다. 이때 건축가는 '작품'으로 주택을 설계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당시대의 고급 주거문화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기 건축가들이 일본의 건축교육제도 하에서 교육을 받았던 만큼 이들에 의해 지어진 주택이 서구식, 혹은 서구의 영향을 받은 일본식이었고, 그것이 주거문화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는 독특한 현상이 특징이다. 결국 초기 건축가들로부터 시작된 근대적 건축 활동은 외래 주거 형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부터는 근대적 주택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일제하의 통치정책이 문화정책으로 바뀌면서부터는 전통주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욱 확산되었다. 이때 일본식, 서구식의 주거문화가 상류계층에 침투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건축가들의 역할이 컸다. 이러한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주택작품은 이후까지도 전통성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일제강점기

* 이 논문은 200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를 지나고, 해방 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 고유의 전통성을 주거건축에 구현하는 것은 건축가들에게 하나의 화두가 되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된 것이다.

현대의 건축가들은 주거공간에 있어서의 전통의 계승은 시대를 넘어 타당성을 갖는 고유의 원리를 유지하면서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수용하는 전통의 창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¹⁾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통성 논의가 시기적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현재까지 발달되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주거건축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전통성 논의는 건축가들이 주택을 설계함에 있어서 항상 첨예한 이슈였다. 하지만 건축가의 주택작품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관 및 형태, 평면 등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를 전통성이라는 맥락에서 파악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연구의 공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며, 더욱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조사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고 지어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시대에 따라 전통성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것이 공간의 구조, 또는 외관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또는 관념상에서만 머물렀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일제강점기 한국인 근대건축가가 등장한 이후부터 2000년대까지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건축가들의 단독주택 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적 전통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사례들을 선택하여 그것이 사회적 상황 및 당시의 디자인 경향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것이 전통성이라는 화두와 어떻게 절충하고 구체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 당시대의 주택작품 중 우수한 사례로 건축전문지에 반복적으로 소개된 것들을 수집하여 평면과 외관을 분석하고, 전통성 구현 방식을 공간구성요소 및 표현요소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이때 소개되었던 전문지의 비평 및 작가 자신의 작품 해설 등에서 전통에 관한 의식이 드러난 부분을 참고하였다.

2. 주택작품에서 나타나는 전통성

2.1. 전통적 생활상의 반영

일제강점기에는 최초로 서구식 근대건축이 도입되었고, 이것이 공간구조에서 전통주택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건축가들은 전통적 생활양식을 서구식

주택 평면에 적응시키는 방식으로 전통성을 해석하였다. 주택의 외형은 서구식으로 변화했지만 그 안의 공간구성은 생활의 내용에 따라 절충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전통주택에서 남, 녀의 생활 분리의 습속이 남아 안채 및 사랑채가 구분된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채가 나누어지지 않았더라도 여성의 공간으로서의 내실, 남성의 공간으로서의 사랑(舍廊)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전통주택에서의 대청은 사라지고 대신 거실, 마루, 응접실, 접객실 등 다양한 명칭의 실들이 등장했다.

1950년대에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건축가에 의해 개별적으로 지어지는 주택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몇몇 건축가들의 주택을 보면 한국 주택이 근대적 주택으로 탈바꿈하는 과도기에 한국 주택의 정체성을 찾고자했던 고민들을 엿볼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일제강점기까지 서구식 주택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외래 주거문화와 여러 방식으로 결합되었던 혼란스러웠던 공간구성 원칙이 많이 극복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본식 평면의 속복도가 사라지고 마루가 부활하여 주택의 중요한 공간으로 등장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생활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 방식으로 남성 공간과 여성공간을 분리하던 원칙이 차츰 사라지고, 거실이라는 가족 공동생활공간이 등장한 것도 큰 변화이다.

전통적 생활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은 1990대 이후까지도 남아 있어, 적극적으로 우리의 것을 찾으려는 움직임은 '전통성'과 '한국성'을 바탕으로 현대의 생활과 정서에 맞는 주거형태로 태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현대주택에서도 채를 나누어 실(室)을 분리하고 채와 채 사이에 연결부를 도입하여 내부공간을 서로 연결하는 구성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전통개념을 도입하면서도 합리적, 기능적으로 현대생활에 맞도록 한 것이다. 채는 개인과 가족의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전통주거에서 성별 및 신분에 따른 공간사용 방식이 현대의 생활방식에 맞게 변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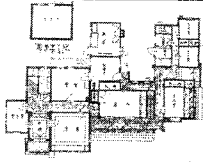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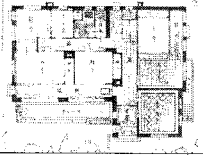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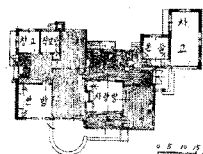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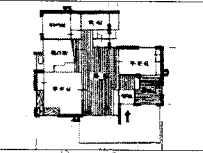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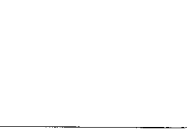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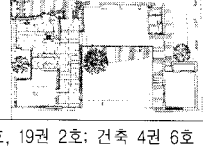
2.2. 직설적 토속성의 표현

혁신적인 건축가들은 전통건축에의 향수로 건축물의 의장 및 외관을 통해 원시적인 형태미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전통성을 해석하였다. 즉, 장식적 모티브와 직설적 표현을 통해 전통성과 지역성을 추구한 경우로, 건축가의 조형 의도와 결합하여 독창적으로 표현된 경우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표적으로 김종업의 작품에서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전 시기의 건축가들은 외래의 주거문화와 고유의 주거문화와 충돌하는 가운데, 생활에 대응하는 기능적인 공간구성에 대해 고민하고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평면형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보수적인

1) 강성중, 한국전통주거의 변용과 재해석에 의한 현대주거공간 디자인 모형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26.

<표 1> 전통적 생활상이 반영된 주택작품 사례

작품명/건축가/건축년도	외관	평면	전통성이 나타나는 공간구성 요소	전통성이 나타나는 표현 요소
김연수 주택 박길룡 1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공간구성에 일본식이 가미된 일-한 절충식 평면 안채와 사랑채를 분리하듯이 접객공간과 가족공간 분리 중정식 평면구성 가미 응접실이 있는 접객공간(남성공간) 및 내방(여성공간)과 노인실로 구성 후면의 편복도에 동선이 연결되어 일부 홑집형 평면 구성 	나타나지 않음.
추씨 주택 박길룡 1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접객부분(남성의 영역)과 가족공간(여성의 영역)이 속복도를 중심으로 좌, 우로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선식 내부창문 마당을 내외담으로 구분하여 마치 사랑채와 안채를 나누듯 구성
K씨 주택 김순하 1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일-양식의 다양한 공간적, 의장적 요소가 적절히 적용된 과도기적 평면형 남성공간인 접객부분과 여성공간인 가족부분이 분리 안방은 대청, 사랑방은 응접실이라는 각각의 마루를 갖고 있어 전통주택에서의 안채, 사랑채를 연상시키는 구성 	나타나지 않음.
김원희 주택 이명철 19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루가 가족용, 응접용으로 분리 명칭상으로 주부실, 주인실이 분리되어 전통적인 남, 녀의 분리 개념 존재 	나타나지 않음.
강명구 자택 강명구 1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지방 민가를 연상시키는 기지형 평면 작은 횃마루를 통해 거실로 진입 현관이 전면에 있어, 전통주택의 대청에서의 진입방식 유지 	거실과 안방 사이의 미세기문
일산주택 권문성 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를 분리하고 현대생활에 맞게 내부적으로 연결 사랑채와 유사한 채를 구성하였으나, 이를 하나의 매스감이 형성되도록 정형적 프레임 안에서 완결시킴. 다양한 동선을 만들어 분리된 공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다양한 시퀀스를 만들도록 함. 	나타나지 않음.

그림출처: 조선과 건축 8권 12호, 11권 7호, 19권 2호; 건축 4권 6호 p.4, p.12, 10권1호, p.20.

성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서구에서 직접 근대건축교육을 받은 김종업은 주택 설계에 있어서 공간의 내용과 질서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자신의 건축적 개성과 철학을 자유분방하게 표출하고, 나아가 주택작품을 예술적 대상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성향이 강했다. 이에 따라 그에게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것은 내부공간의 내용보다는 혁신적이고 조형성이 강한 외관을 통해 표현되었다.

초기에는 지붕과 기둥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했으며, 후기 작품은 화려한 매스와 지붕의 조형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이러한 그의 주택 작품은 과도하게 장식적으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²⁾ 또한 직설적 표현은 전통성과 지역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단편적인 은유³⁾에 그치고 만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2.3. 표현주의적 성향

1970년대에는 주택의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하

면서 서구적 이미지에 대한 반향으로써 ‘한국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특히 외관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상과 정서를 반영하고 민족적, 지역적 특성을 그 표현수단의 근거로 삼고자하는 방식이 많이 적용되었다.⁴⁾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축가는 김수근이다. 그가 유년시절을 서울의 북촌에서 보냈다는 배경은 무의식적인 공간체험이 되어 지속적으로 그의 ‘건축적 자아’⁵⁾를 형성했고, 이것이 나아가 한국건축의 자아를 찾고 전통성을 추구하는 건축적 기초 양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재료와 질감을 중요시하는 표현주의적 특성을 보이는데, 1970년대 이후에 벽돌, 나무, 전돌 등으로 재료의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토속미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정서적인 측면에 더욱 호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수근은 전통에 대한 해석을 새로운 건축어휘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으며, 이를 다수의 주택 작품에 실현하였

2) 정인하, 김종업 건축론, 시적 울림의 세계, 산업도서출판공사, 2000, pp.160-161.

3) 이승현, 김수근과 김종업 건축의 지역성구현에 관한 비교연구, 건축역사연구, 13권 3호, 2004, p.44.

4) 이호정, 주거 문화적 측면에서 본 한국 근 현대 주거건축의 문화적 변이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p.130-131.

5) 강윤식·이동언, 김수근 건축에 나타난 복합적 영향관계,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7호, 2004, p.174.

<표 2> 직설적 토속성을 표현한 주택작품 사례

작품명/건축가/ 건축년도	외관	평면	전통성이 나타나는 공간구성 요소	전통성이 나타나는 표현 요소
사자집 (한창우 주택) 김중업 1959			나타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전통주택의 지붕선을 직설적으로 차용한 사자의 독특한 지붕선
이경호 주택 김중업 1967			나타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크리트를 주요 재료로 사용하여 근대건축의 표현에 충실하면서도 한식 담과 같은 한국적 의장요소를 단편적으로 가미 한옥의 선적인 요소를 연상케 하는 전면의 기둥과 서까래 및 튀어나온 처마로 한국적 미를 은유적으로 재현
이강홍 주택 (한남동주택) 김중업 1979			나타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을 이용하여 토속적 미를 표현하고 원시적인 형태미를 재현 전통 초가지붕이 갖는 특징을 직관적 태도로 추상형태로 추출
성복동 주택 김중업 1987			나타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담, 성곽 등에서 영감을 받은 수직적 매스 부가 초가지붕을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지붕선 사용 거친 돌과 같은 토속적 재료 사용
삼선동 주택 이현호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자 출입형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관에 토속적인 석재 사용 목가적이고 고풍스러운 외관 초가지붕을 연상시키는 지붕

그림출처: 정인하, 김중업 건축론-시적 물리의 세계, 2000, p.167, p.185, p.186, p.202; 건축세계사 편, PA-세계건축가시리즈 김중업, 1997, p.75, p.84; 건축사, 1982. 09. p.34; 공간, 1981. 12, p.79; 플러스, 1987. 05. p.92, p.93; 건축문화, 1988. 04. p.110, p.113.

<표 3> 표현주의적 성향이 강한 주택작품 사례

작품명/건축가/ 건축년도	외관	평면	전통성이 나타나는 공간구성 요소	전통성이 나타나는 표현 요소
우촌장 김수근 1971			나타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돌을 사용하여 인근의 한옥과 조화를 이루고자 함
삼성동 주택 오택길, 민현식 1976			나타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굵은 선을 가지는 기와의 텍스처 강조 기와의 쇠운 박공지붕의 보수적 외관
서교동 오씨 주택 김기석 19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당에 정자 설치 거실의 중심축과 정자의 중심축을 일치시킴으로써 채, 마당, 채의 형식 강조 전통적 형식의 안방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적 전벽돌 사용 여러 겹으로 강조된 처마선 2층 주택을 1층으로 보이도록 대지에 밀착한 지붕을 구성 : 땅을 향해 있는 초가집의 조형감각 응용
역삼동 주택 류춘수 1988			나타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지기와와 목재처마로 투박한 질감 표현 맞배지붕의 측면과 같은 조형요소 도입

그림출처: 공간, 1980. 01, p.166, p.171, 1977. 01, p.33; 플러스, 1987. 05, p.90, p.98; 건축문화, 1988. 04, p.21, p.22.

다.6) 이러한 그의 작품 성향을 추종하는 후대의 건축가

들은 상당히 많았다.

6) 김수근은 “전통이란 형식화되고 고정화되기 쉬운 것이다. 고전형식의 되풀이나 모방이 전통의 계승이라 할 수 없다. 전통의 계승은 전통의 창조적인 계승을 말한다.”라고 주장하였다.(정인하, 단계 겐조와 요시무라 준조 그리고 김수근의 전통론 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7호, 1995, p.35.)

1970년대의 주택들에서는 1960년대 주택작품에서 유행했던 슬래브 평지붕이 사라지고 정서적으로 친근한 경사지붕이 다시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즉, 지붕은 많은 작

7) 건축문화, 1989. 08, p.41.

가들이 '전통민가의 조형적 의지를 현대적 어휘로 수용하려는'⁸⁾ 의도로 매우 과감하게 디자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주택의 외부 마감 재료로는 거의 유행처럼 벽돌, 전돌 등 자연재료를 많이 쓰게 되었다.⁹⁾ 또한 콘크리트의 조소성(彫塑性)과 거친 재질감을 이용하여 한국적 조형성을 유추하여 유동적인 곡면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 시기는 전통적인 형태적 모티브를 차용하여 이를 직접 인용한 역사주의적 해석을 보이거나,¹⁰⁾ 수공예적 수법들을 적용하여 토속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경향도 많았다.¹¹⁾ 이때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은 사자형 지붕 형태와 적벽돌, 오지기와 지붕도 유행했는데,¹²⁾ 한국적 전통성이 다양하게 변형되고 응용되는 실험적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한국성의 표현이라는 명분 하에 콘크리트 지붕이 과감하게 변형되고, 전통에서 응용된 의장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었다. 건축가들은 한국적 재료를 사용하고 의장적 요소를 차용하면서, 이러한 한국적 요소를 서구적 형태와 결합시킴으로써 '전통성의 추구하고 동경의 추구'라는 이원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주장한다.¹³⁾ 하지만 육중하고 과장된 지붕디자인, 굴뚝, 뽕죽지붕 등은 이국적 정서를 과도하게 드러냄으로써 전통적이라기 보다는 절충적인 것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4. 매스와 평면의 분산

1980년대 초는 평면구성에 있어서 전통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이 절충되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 1980년대는 도시 단독주거지의 필지의 규모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건물과 외부공간의 사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건물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 중 새로이 나타난 경향 중의 하나가 건물이 좁은 대지의 마당을 둘러싸도록 한 사자형 평면의 구성이다. 건물 양 끝단에 배치된 거실 및 안방은 마당을 향하고, 서로 직각의 위치에 놓인다. 거실과 식당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부엌은 보통 식당과 연계되어 후면에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계획 경향은 후에 자주 등장하는 ㄷ자형으로 진행되는 전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마당과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도시형 한옥 이후 사라졌던 내향형 주거의 성격을 어느 정도 복원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례이다.

이러한 경향은 전통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보다 도시적이며, 현대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전통의 개념에 도시성을 접목하여 '단일주거'의 계획으로부터 '거주지의 일부로서의 주거'를 계획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은 현대 주거가 가져야 할 명확한 목표를 의식한 것이다. 주택을 주택 자체로만 이해하지 않고 이를 도시 속에서 의식함으로써 근대 도시형 한옥의 공간과 형태를 재현하고자 했으며, 주택가의 기존문맥에 대응하는 공간 형식을 제안하는 등 도시건축의 양상을 보인 것이다.

또한 주택의 내부공간은 물론 외부공간까지도 전통에 관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다루었다. 이는 대부분 가로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반면 내부로 개방된 '중정'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도시 속의 협소한 대지의 상황을 이해하고 건물을 그것에 적응시키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공간의 연속성, 마당과 마당이 어우러지면서 이루는 외부공간의 흐름, 동네와 도시로 확장되는 체험적 요소들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했다.¹⁴⁾ 이때 공간을 반쯤 열리고 반쯤 닫힌 느낌으로 구성하면서도 장식적 요소는 배제되는, 상당히 현대적인 해석을 보여준다.

1980년대 말부터 건축가들은 주거건축에서 자유롭고 개성적인 실험적 시도를 통해 자신의 건축적 의지와 철학을 대변했는데, 이때 전통성 혹은 한국성을 추구하는 양상은 극도의 다양성의 속에서 적극적으로 재창조되는 경향을 보였다.¹⁵⁾ 특히 1980년대 말부터 등장한 해체적 성향은 고전적 조형 이미지와 주택의 정형성으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종래의 조형성이 지붕 및 건물의 형태 변형으로부터 온 것이었다면 이 시기에는 벽체의 연장, 매스를 관통하는 가벽 및 프레임 설치, 발코니 설치 등 외부공간과 결합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하학적 특성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¹⁶⁾

이와 함께 매스를 분절시키거나 작은 단위로 분해하고 재결합함으로써 유기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이 시도되었다. 매스에서 해체된 부분적 요소들은 대부분 건축화된 테라스, 뒷마루, 차양 등으로 변형되어 서로 맞물려 전통주택에서와 같이 내, 외부공간의 중간적 성격이 부여된 공간을 구성한다. 이렇게 형태적 조작을 통해 만들어진 매스들은 다양한 외부공간과 매개적 공간들을 낳게 된다. 또한 단순형상을 지니는 평면은 감소하고 더욱 자유롭게 구성되어 외부윤곽이 불분명해지는데, 이로써 외부공간은 자연스럽게 위요감을 갖도록 형성되어 내향적 마당을 형성한다.¹⁷⁾ 또한 변화무쌍한 내, 외부공간의 구성과 건물의 체험을 통해 전통성을 미학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때 나타난 특징은 위요(圍繞)형 평면이¹⁸⁾ 다수를 차

8) 건축문화, 1989. 08, p.40.

9) 공간 1977. 01, p.30.

10) 윤승중, 한국주택건축의 실상 : 1970년대 주택 건축 양식, 공간, 1988. 01, pp.51-59.

11) 한국 현대건축의 회상, 공간, 1981. 12, p.17.

12) 작가주택과 주거문화, 공간, 1989. 12, p.94.

13) 플러스, 1987. 05, p.97.

14) 건축문화, 1991. 01, p.107.

15) 임장복, 한국 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p.122.

16) 최혜진, 한국 건축가에 의한 단독주택 형태구성에 관한 유형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17) 강성중, 한국전통주거의 변용과 재해석에 의한 현대주거공간 디자인 모형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26.

18) 전경화, 우리나라 작품주택의 공간구성적 특성 및 그 변화에 관한

<표 4> 매스와 평면을 분산시킨 주택작품 사례

작품명/건축가/건축년도	외관	평면	전통성이 나타나는 공간구성 요소	전통성이 나타나는 표현 요소
임씨주택 홍순인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ㄱ자형 민가의 배치방식과 유사하게 구성 · 거실, 식당, 안방을 흐르는 듯한 개방적 공간으로 구성 · 평면을 여러 단계로 분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깊은 처마 형성
침담동 주택 조성룡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ㄷ자형 건물로 중정을 둘러싸는 배치 · 채와 채의 나눔과 연결로 열린과 막힘의 공간적 변화 추구¹⁹⁾ · 콘크리트로 가구식 구조방식. · 안방이 중정에 면하면서 툇마루와 면하게 함으로써 공간의 진이를 위한 커의 개념 적용²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출콘크리트 프레임으로 전통주택의 선적 요소를 강조
합정동 주택 조성룡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당개념을 도입 · 주거 건물이 도시의 한 부분으로 골목의 정서와 감성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역할 · 출입형을 기본으로, 매스를 작은 볼륨으로 나누어 주변의 한국적 도시스케일에 조화 · 매스의 분절로 규모가 작은 지붕을 설치하여 지붕의 중첩이 가져오는 골목의 분위기를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자형의 퍼골라가 마당을 에워싸며 외부공간을 폐쇄적으로 연결
한운재 조계순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실을 중심으로 한쪽으로는 안방, 다른 한쪽으로는 식당과 부엌을 배치함으로써 전통주택에서 마루가 있는 출입형 평면 구성 · 축은 45도로 변형되어 ㄱ자형 건물을 만들고 마당을 위 포함 · 깊은 처마와 툇마루 구성 · 풍수지리적 좌향에 따라 건물을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마 밑 서까래의 조형요소 응용
솔스티스 김인철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ㄷ자형 평면을 채택하고 중앙의 거실을 대청과 같이 앞, 뒤로 관통시킴 · 평면을 출입형으로 분산시키고 개방성이 강한 거실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임과 가벽 등이 가구식 프레임 강조

그림출처 : 건축사, 1981. 09, p.67; 플러스, 1988. 02, p.83, p.95, 1988. 06, p.88, 1989. 11, p.104, p.110; 건축문화, 1991. 01, p.107; 공간, 1988. 07, p.123; 현대건축사편, CA10-현대건축, 1996, p.126.

지한다는 점으로, 마당을 둘러싸는 채의 분리로 나아가는 중간단계라 할 수 있다. 공간의 분산과 매스의 절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성향은 당시 유행했던 서구의 해체주의적 성향에서 나타나는 건축 어휘와 공간구축방식이 전통적 공간구축 방식과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건축의 개념이 전통적 개념과 절충되는 이러한 경향은 이후 전통적 공간구성 요소를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2.5. 전통적 공간구성 요소의 재현

1989년 일본 동경에서 ‘신세대의 한국전, 마당의 사상’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렸는데, ‘마당’의 사상이 한국 주택 건축에 있어서 새로운 원천이 될 것을 보여준 전시회였다. 여기서의 핵심은 전통적 요소를 직접 장식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절제하고, 보다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때 건축가들은 서구적 기능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역사적 향수를 느끼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동선을 연장하여 공

간경험을 유도함으로써 조금 불편하더라도 전통적 느낌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통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였다.

또한 이전의 주택작품이 거대한 규모의 화려한 건물이 대부분이었다면, 1980년대 후반의 많은 주택작품들은 소박하고 친근한 인간적 스케일을 적용시켜 전통주택의 공간감을 재현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는 도시형 한옥의 분위기와 공간구성 원리를 따르는 경향을 많이 보였고, 교외에서는 넓은 대지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 민가의 공간구성방식을 적용하였다.

1990년대 이후 주택작품에서는 전통주택이 갖는 ‘공간적 원리’나 그 ‘개념 체계’를 통해 전통성을 구현하는 것이 하나의 큰 조류였다. 특히 미학적, 정서적으로 탁월한 전통주택의 추상적 개념들을 추출하여 이를 공간적으로 승화시키고, 나아가 건축적으로 완성하고자 한 시도들이 큰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인 개념은 전통주택의 위계적 마당 개념을 공간적, 형태적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이다.²¹⁾ 또한 로고스 중심의 서구사상에 의한 건축의 명료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²²⁾

유형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9) 건축문화, 1988. 02, p.24.

20) 건축문화, 1991. 01, p.107.

21) 신경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작품주택에 나타난 전통성의 현대적 구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2) 우경국, 평심정, CA-현대건축, 현대건축사, 2000, pp.103-105.

<표 5> 전통적 공간구성 요소를 재현한 주택작품 사례

작품명/건축가/건축년도	외관	평면	공간구성 요소	표현요소
H 주택 황일인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ㄷ자형 배치로 마당을 둘러싸는 중정 형성 안방, 거실, 식당, 운동방에 이르기까지 선(線)적으로 흐르는 동선을 구성 뒷마루를 연상시키는 데크 	나타나지 않음.
삼하리 주택 류춘수 19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구조를 채택한 ㄷ자형 홑집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서로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소통 식당에 면한 뒷마루 등 전통적인 매개공간을 응용하여 재창조²³⁾ 마당이 분절되고, 채가 나누어짐과 동시에 입면상으로 부분적으로 연결 내부공간에서 낮은 층고(195)를 적용 각 방에 융통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달이문을 적극적으로 도입 거실에 서까래 노출
정릉 C씨주택 승효상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 스케일로 사랑채와 뒷마루를 구성 뒷마루와 같이 내, 외부공간을 동시에 체험하도록 해 주는, 건물과 외부공간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장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문, 피콜라, 데크, 뒷마루 등의 건축적 어휘 활용
수서정 김인철 19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를 연상시키는 매스의 분절 목구조로 기둥과 보의 구성적 특성 강조 전통적 칸 개념을 적용하여 칸의 중복과 복합으로 내부공간 구성²⁴⁾ 	나타나지 않음.
임거당 김효만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입마당, 안마당, 정자마당, 서재 앞 지하마당, 식당 앞 지하마당, 두 개의 옥상대청마당, 서비스 마당 등 여덟 개의 마당이 은유적으로 재현되어 하늘을 향해 열린 공간을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성, 시간성을 가지는 목재 사용 한식 들어열개문 및 목재결구 철물 사용²⁵⁾
평심정 우경국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땅과 밀착한 수평적 형태로 하늘과 땅의 만남을 의도 내부공간의 경계를 해체하여 융통성 있는 반개방적 평면 구성 투명하고 얇은 차단장치로 경계지워지는 한옥의 홑집과 유사하게 공간을 구성 자연과 전통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통해 정신적인 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건축적으로 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당을 에워싸는 담장으로 폐쇄성 강조 처마, 뒷마루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응용

그림출처: 건축사, 1981. 09, p.62, p.63; 주택문화사 편, 건축가 30인의 주택작품집, 1993, p.36, p.41, p.64, p.65; 건축문화 1989. 09, p.58, p.59, p.94, p.95; 현대건축사편, CA23-현대건축, 1999, p.249, p.250; 현대건축사 편 (2000)1, CA33-현대건축, p.104, p.108.

이러한 경향은 당시 전원주택 건축이 활발했던 시대적 배경과도 관계가 있다. 도심을 벗어난 너른 대지는 평면적으로 확장되고 펼쳐진 건물의 배치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1990년대에는 ㄱ자형, ㄷ자형 평면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평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비정형화되며 구성은 더욱 자유로워졌다. 특히 도시형 한옥의 공간구성 방식을 따라 그동안 대지의 한쪽에 외향적인 건물을 배치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것도 큰 변화이다. 이러한 경향은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인 마당과 함께 건물이 그것을 둘러싸는 평면형식으로 발전한다. 소위 위요형 평면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주택들은 긴 동선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대문에서 현관까지의 진입동선에서, 혹은 내부의 각 공간들을 잇는 동선에서 계단과 단차, 그리고 여러 번의

꺾임은 다양한 공간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다. 결국 중정을 중심으로 하는 ㄷ자형 공간구성은 전통주택의 홑집형으로 정착하게 된다.

2.6. 채나눔과 비움의 미학

마당의 재해석과 함께, 분절된 매스라는 ‘채’ 개념이 1990년대의 새로운 전통성의 표현방식으로 등장하였다. 채의 분화는 안채와 사랑채의 개념을 현대에 맞도록 실의 용도를 구분하고, 여러 개의 마당을 적재적소에 분산시켜 배치함으로써 내, 외부공간을 다양하게 연계시킨다. 또한 정자, 누마루 등의 건축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개구부를 이용하여 차경을 하기도 한다.

프레임이나 건물로 둘러싸인 중정이나 마당을 형성하려는 노력은 1990년대에도 여전히 지속되는데, 이것은 주택 내부공간의 개방성과 확장의 효과를 획득하려는 의도이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어 채와 중정의 결합

23) 공간, 1986. 12. pp.127-133.

24) 건축문화, 1989. 09, p.59.

25) <http://kia.or.kr>

적 구성이 주택계획에 있어서 하나의 명제로 정착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²⁶⁾ 또한 '공간의 개별화'는 1990년대 주택작품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으로서, 건물의 덩어리를 분절하여 그 중심에 구심점을 형성하거나 분절된 매스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경향이다.²⁷⁾ 이때 다양한 연결 공간 및 분절된 매스들에 둘러싸이고 그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중정'은 전통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한 공간이다.

승효상의 '빈자의 미학'은 그 동안의 경제적 수준향상으로 얻은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공허함을 치유하고, 물질적인 것이 어느 정도 충족된 이후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다양한 시도들 중에서도 건축가들이 공통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주택에서의 '마당'이다.³¹⁾ 이때 마당은 단지 건물을 배치하고 남은 공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결된 형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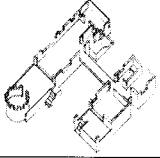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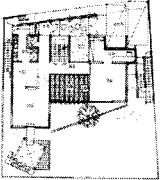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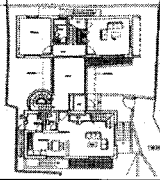
건물과 동시에 계획되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공간구성은 1970, 80년대 형식적으로 전통을 인용했던 차원에서 한 단계 진보된 전통성의 표현방법이라 할 수 있다.

2.7. 자연과의 교감

진정한 전통성에 대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요소는 자연과의 조화로, 19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자연이 내부공간으로 유입되고 건물과 주변 환경이 유기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자연과의 교감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이는 외관에서 드러나지 않는 전통주택의 인문학적 의미를 재현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1978년 '우리의 전통 정신을 살린 현대주거는 어떤 것인가'라는 과제로 공모한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가 및 심사위원들은 주택에 있어서 전통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

<표 6> '채나눔과 비움의 미학'이 구현된 주택작품 사례

작품명/건축가/건축년도	외관	평면	전통성이 나타나는 공간구성 요소	전통성이 나타나는 표현 요소
탄현재 이일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공간을 채로 나누고 주된 공간을 복도나 브릿지로 연결 • 앞, 뒷마당 사이에 위치한 내부공간의 벽체나 개구부를 투명한 유리로 처리함으로써 공간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 	나타나지 않음.
수졸당 승효상 19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쪽을 향해 열린 ㄷ자형 배치가 도시형 한옥의 공간구성 계승 • 흙마당, 마루마당, 뒷마당 등 다양한 마당 구성 • 집의 중심에 마당을 두고 그 마당을 중심으로 방들을 배열 • 빈자의 미학, 선비사상, 무용, 청빈 등의 개념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당과 돌담, 흰벽, 한그루의 나무와 같은 요소들이 '절제'와 '사유'로서 '빈자의 미학'을 표현 • 전통적 사교석 담장으로 마당을 분절하고 동시에 연속시킴²⁸⁾
몽학재 우경국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변적 벽을 통해 '비움' 공간'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 • 일자형 출입과 마당 구성 • 식당, 거실, 마당의 경계를 가변적으로 구성하여 공간이 서로 흐르도록 함. • 전통적 칸 개념 적용 • '비워진 마당'이라는 절제감을 통해 정신적 충만함을 추구 • 정자와 루의 기능을 겸한 누정을 철골 입방체로 구성²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조가구식을 연상시키는 철골을 노출하여 구조미 강조
원서동 주택 우시용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한옥의 흔적을 되살리는 ㄷ자 배치 • 전면도로측으로 바깥마당을, 후면으로는 안마당 배치 • 앞채와 뒷채를 연결하는 가족실이 대청마루를 연상³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절된 맞배지붕 사용

그림출처: 강성중, 2002, p.62; <http://ca.nmpia.co.kr>; 주택문화사 편, 건축가 30인의 주택작품집, 1993, p.151; <http://www.kia.or.kr>.

26) 전경화, 우리나라 작품주택의 공간구성적 특성 및 그 변화에 관한 유형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57.

27) 이법재, 1990-91년 한국 주거건축의 경향, 플러스, 1988, 02, p.88.

28) <http://kia.or.kr>

29) <http://kia.or.kr>

30) <http://ki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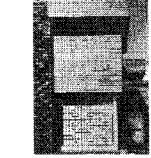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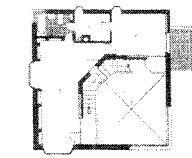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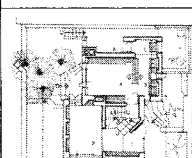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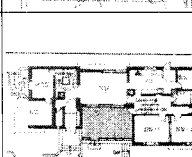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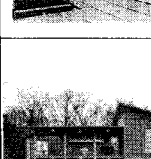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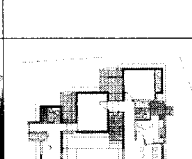
31) 그는 마당에 대해 "흙마당과 마루마당, 장독이 있는 뒷마당, 그리고 윗마당 등으로 구성된 이 공간은 서로의 구획을 넘나들며, 때로는 정원으로, 때로는 거실로, 때로는 전시장으로, 때로는 잔치집 마당으로, 때로는 오브제로, 때로는 공허로, 때로는 침묵으로 다가올 것이다. 돌담, 흰마루, 흰벽, 한 그루의 나무... '빈자의 미학'을 이야기하는 좋은 요소가 된다." 라고 한다. 승효상, 수졸당, 건축과 환경, 1993, 01.

었다.³²⁾ 당시 우수작으로 뽑힌 세 작품³³⁾ 모두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대명제를 통해 전통을 계승하려는 시도를 보여, 더욱 성숙해진 전통관을 보여주었다. 대상을

32) 여기서는 전통성에 대해 "건축의 전통계승은 형태의 계승이 아니며, 전통의 재창조란 전통의 여러 채요소들이 흔적 없이 섞여져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과거의 흔적을 어느 한 귀퉁이에 섞어 넣어 보여줬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였다. 공간, 1978, 12, p.8.

33) 당선된 세 작품은 민현식의 '도시주거생활의 장소', 송광섭의 '우리의 전통정신을 살린 현대주거는 어떤 것인가', 이회봉, 유재현의 '전통정신을 살린 현대주거'이다.

<표 7> 자연과의 교감을 추구한 주택작품 사례

작품명/건축가/건축년도	외관	평면	전통성이 나타나는 공간구성 요소	전통성이 나타나는 표현 요소
세이장 김수근 19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서리창으로 자연과의 교감 유도 자연이 내부공간으로 유입되고 건물과 주변 환경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도록 함 좌식생활을 염두에 두고 실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창살과 창호지를 사용
창암장 김수근 19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과의 교감'이라는 한국의 전통적 공간 특성을 추출하여 그 가치를 추상적으로 재창조 경사진 대지의 레벨차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공간을 상, 하로 연결함으로써 마당과 대청의 매개적 특성 재현 지형에의 순응하고 기존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색 전돌과 목재 등 주변과 조화되는 재료의 선택을 중요한 전통성으로 활용 투박한 질감으로 한국 자연환경의 토양 및 회강석을 연상하도록 벽돌을 사용 친근한 재료로 복층에서 경험했던 전통 주거지의 기억을 재생
아리장 김원석 19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면과 공간의 레벨을 자연스럽게 밀착시킴으로써 '자연과의 순응' 추구 누더, 뒷마루, 사랑방 등의 공간구성요소 활용 전면 통창으로 자연과의 교감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색 전벽돌 사용
갈현동 소나무집 류춘수 19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의 중앙에 위치한 큰 소나무로 자연적 요소를 주택 깊숙이 끌어들임 소나무를 ㄷ자형으로 둘러싸는 평면으로 자연이 입체적으로 해석되어 주거공간에 3차원적으로 관입 거실의 전, 후면을 개방하여 전통주택의 홀집에서의 대청 차용 거실을 중앙에 배치하여 대청마루처럼 구성하고 마당의 경관을 차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크가 거실의 연장공간으로서의 뒷마루 표현
미제루 방철린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 영역이 마당을 중심으로 엮거리면서 상호 침투하는 ㄷ자 구성체 어느 공간에서도 자연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계획 풍수지리 사상 반영 '무위'란 것을 자연과 인간과 건축의 관계를 설정할 때 쓰일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마루를 통해 전원의 경치를 프레임화 주변 환경과의 시각적 조화를 이루기 위해 건물을 수평으로 펼침 자연적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자연과 융합 4개의 독립된 경사지붕으로 전통가옥을 연상시킴.

그림출처: 공간, 1980. 01, p.155, p.159, p.163, p.165, p.200, p.202; 건축사, 1984. 03, p.11; 현대건축사 편, CA33-현대건축, 2000, p.189, p.191.

차지한 민현식은 '주택을 형성하는 바탕은 빛, 바람, 물과 나무이며, 이것들이 자연 속에서 통합됨으로써 우리가 자연과 조화된다'고 보았다. 또한 주택의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요소들은 '외기의 적극적인 정돈, 분절과 연속, 비대칭성, 적극적 절제 또는 충동적 과장, 흐름에 따른 경치의 조정, 열림과 닫힘의 교차, 접합부의 상세'라 하였다.³⁴⁾

1980년대에도 '자연과의 소통'은 주택작품에서 중요한 큰 방향으로 설정되었고, 이를 통해 전통을 새로이 해석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자연을 그동안의 서구적 주거에 대비되는 전통적 주거의 본질적 요소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궁극적으로 '전통적 정서로의 회귀'라는 시도로 발전되었다.

'주택과 자연과의 관계'는 1990년대 이후에도 여전히 가치로 인식되어 자연을 수용하고 함께 어울리려는 태도가 지속적으로 반영되었다. 자연과의 접촉 기회가 적은

현대의 주거환경은 건물의 내부를 비워 자연을 가까이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앞마당-내부공간-뒷마당의 순서로 이루어진 공간구성을 통해서 공간의 확장감과 깊이감을 얻거나, 앞마당과 뒷마당의 사이에 위치하는 내부공간의 벽체를 개구부로 이용해 시각적 흐름의 연속성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내부에 앉아서 마당이라는 외부공간을 관조의 대상으로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교외에 자리잡은 주택의 경우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전통주택의 풍수지리적 사상에 근거하여 실현하였다. 이로써 '배산임수'의 원리에 따라 터를 고르고 건물을 앉히는데 있어 주변 산세와 물의 흐름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자연과의 교감은 공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 건축적 요소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첫째, 개구부를 통해 차경 등의 방법으로 자연을 집의 내부로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이것이 가능해진 것은 개구부의 크기와 위치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기술과 재료의 덕택이다. 또한 주변의 산이나 경치뿐만 아니라 마당의 경관까지 집의 내부로 유입

34) <http://www.kia.or.kr>

35) 공간, 1978. 12.

되도록 하였다. 개구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현대사회에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수월한 방법이 되었다. 둘째, 자연을 관조하기 위해 물리적 장치로서 누마루, 정자와 같은 외부건축물을 두는 것이다. 이로써 전통건축에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다양한 공간들의 역할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3. 전통성 해석의 시대별 경향

전통성은 근대건축 도입 이후 건축가들이 주택 설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추구해 온 주제이다. 주택작품을 전통성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시대에 따라 그 경향과 구체적인 공간구성 요소 및 표현 요소가 달라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건축가에 의한 주택작품들은 한 가지 성향의 특징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다. 한 작품에서 다양한 개념이 중복적으로 적용되기도 했고, 시기별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경향들이 있는가 하면, 중요한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개념도 있다. 때로는 당시의 지배적 성

향을 따르기도 하였고, 또 어떤 작품에서는 개인적 성향이 두드러진 독자적 작품을 완성하기도 하였다. 조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전체 흐름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970년대 이전의 작가주택에서는 전통성을 의식적으로 구현하려고 노력했다기보다는 서구적 주택에 한국적 생활양식을 절충하고자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는 서구적 주택이 자리를 잡는 시기였으며, 전통성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초까지의 주택작품에서 '전통의 계승' 혹은 '한국적 조형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주로 직설적인 전통적 어휘들을 인용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1980년 중반 이후부터는 전통건축의 공간구성 기법이나 개념들을 변용하여 현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전통성 표현의 방법을 형태적 어휘로부터 공간적 개념으로 발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에 대한 형태적 적용은 1980년대 말의 '분산형 평면' 개념을 거쳐 1990년대 이후 '중정과 채' 개념으로 정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전통성 해석의 시대적 경향 요약

	1930-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공간구성 요소	일·한 절충식 평면 절벽, 가족공간 분리	가죽용, 응접용 마루 분 리 남, 녀공간 분리개념 전 존	1차 민가형 평면 대청 전면의 현관	1차 민가형 평면 개방적 공간구성	매스와 평면의 분산 2차 평면 유동적 공간구성	체나눔과 연결 거실의 전후면 관통 콘크리트 가구식 공간의 전이	1차 홀집합, 평면 마당
		전통적 생활상의 반영		전통적 공간구성요소의 재현	1차 홀집 마당의 분절 평면의 융통성	지붕의 중첩 매스와 분절	
			자연과 교감 주변환경과 유기적 소통	자연과 교감 자연경사에 순응 기존 지형, 수목 보존 전연통창	중앙거실(대청마루) 거실로의 차경	저마 추녀 뿔마루	마당의 분산 반개방적 평면 동선의 유기적 연결
				자연과의 교감		자원에 열한공간 풍수지리 무위의 개념 누마루 수평선 강조 자연재료	
표현 요소		1차 지붕	전통창호, 창호지 회색전돌, 목재, 벽돌	정자 돌탑, 석축 거친돌(토속재료) 목가적 고풍 외관	정자 돌탑, 석축 거친돌(토속재료) 목가적 고풍 외관	가변성 칸 개념 적용 정자와 누정	체나눔과 비율의 미학
		직설적 토속성의 표현	서까래 처마 담	토속적 지붕 원시미 추구 초가지붕 형태	초가지붕 형태		
			전돌 사용	오지기와 거친 텍스처	처마선 강조 초가지붕 형태 오지기와 목재처마		
			표현주의적 성향				

1990년대 이후 주택작품에 반영된 전통성의 내용은 형태보다는 사상적 측면과 공간의 구성원리 및 기능에 대한 계승으로 진행되었다. 전통성이 감상적 차원이 아닌 현대 주거에 필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성의 내용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대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변형되어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와 같이 부분적으로 형태를 모사하여 전통성을 계승하기 보다는 전통공간의 형식을 빌어 현대 생활에서 필요한 행위를 충족시키고자 한 의도가 강했던 것이 1990년대 주택작품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한국의 근·현대 건축역사를 살펴보면, 건축가들은 일반 건축분야에 비해 주택 부분에 있어서 전통성의 표현에 더욱 고심했음을 알 수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주거는 외래 문화와의 충돌을 항상 겪었으며, 고유한 생활과 이문화와의 갈등, 진보적 디자인과 한국적 정서와의 갈등이 항상 있어왔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주거는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의해 변화하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근대화 과정에서 고유의 주거형태가 사라지고 급격히 외래의 주거형태로 대체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한국의 주거형태와 문화에 있어서는 항상 전통성과의 조화라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근대건축 도입 이후 2000년대까지 전통성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간구성 요소들을 적용하고 전통적 건축 어휘를 구사하면서 한국 주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정, 반, 합의 과정을 겪어왔다고 할 수 있다. 건축가들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입장에서 시대적 책무를 갖고 있었으므로, 주택작품 속에 창의성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통성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이것은 결국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주거문화에 서구적 양식이 도입된 이래, 다양한 주거의 유형이 나타났다 사라졌고, 아직도 한국 고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때 주거문화를 선도하고 하위계층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의 형태가 건축가에 의해 지어진 고급 주택으로의 단독주택임을 상기한다면, 그 안에 녹아있는 전통성의 의미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오늘의 주거문화와 문화적 속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주거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전통이 반영된 여러 디자인 사례들은 주거를 계획함에 있어서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 및 디자인 요소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주택작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건축가는

그들의 개성을 표현하고 첨예한 경향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거주자의 정서를 반영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를 작품에 적용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소나마 진정한 전통성과 주거문화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주택작품 뿐만 아니라 기념비적 건축물 등에서도 전통성 논의가 부각이 된 사례가 많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가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후일의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건축세계사편, PA-세계건축가시리즈 김종업, 건축세계사, 서울, 1997
2. 정인하·김중업 건축론, 시적 울림의 세계, 산업도서출판공사, 서울, 2000
3. 주택문화사 편, 건축가 30인의 주택작품집, 주택문화사, 서울, 1993
4. 현대건축사 편, CA-현대건축, 현대건축사, 서울, 2000
5. 이승현, 김수근과 김종업 건축의 지역성구현에 관한 비교연구, 건축역사연구, 13권 3호, 2004.
6. 강성중, 한국전통주거의 변용과 재해석에 의한 현대주거공간 디자인 모형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7. 신경화,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작품주택에 나타난 전통성의 현대적 구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8. 이호정, 주거 문화적 측면에서 본 한국 근현대 주거건축의 문화적 변이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9. 임창복, 한국 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10. 진경화, 우리나라 작품주택의 공간구성적 특성 및 그 변화에 관한 유형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11. 최혜진, 한국 건축가에 의한 단독주택 형태구성에 관한 유형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12. 강윤식·이동인, 김수근 건축에 나타난 복합적 영향관계 -해물드블룸의 "영향이론"을 바탕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7호, 2004
13. 정인하, 단계 겹조와 요시무라 준조 그리고 김수근의 전통론 비교,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7호, 1995
14. 승효상, 수출당, 건축과 환경, 1993. 01.
15. 윤승중, 한국주택건축의 실상 : 1970년대 주택 건축 양식, 공간, 1988. 01.
16. 이범재, 1990-91년 한국 주거건축의 경향, 플러스, 1988. 02.
17. 공간, 1977. 01; 1978. 12; 1980. 01; 1981. 12; 1988. 07
18. 건축, 4권 6호; 10권 1호
19. 건축문화, 1981. 09; 1988. 04; 1989. 08; 1989. 09; 1991. 01
20. 건축사, 1981. 09; 1982. 09; 1984. 03
21. 조선과 건축, 8권 12호; 11권 7호; 19권 2호
22. 플러스, 1987. 05; 1988. 02; 1988. 06; 1989. 02; 1989. 11
23. <http://ca.mmpia.co.kr>
24. <http://www.kia.or.kr>.

[논문접수 : 2009. 12. 24]

[1차 심사 : 2010. 01. 21]

[게재확정 : 2010. 02. 05]